

KLI 고용·노동 리포트

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

2011. 10. 30 | 통권 제8호(2011-08) |

외환위기 이후 여성 고용의 특징*

[요약]

-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,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M자형 곡선도 개선됨.
- 최근 여성의 일자리창출 동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 여성에게 청년층 취업난의 고통이 집중되고 4년제 대졸의 고학력 여성의 상당수는 30대 이후 취업을 포기하고 있음.
- 고령화와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2010년 여성 취업자의 60.3%가 39세 이상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저임금, 고용불안, 저기능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.
- 향후 여성 일자리의 질 개선 없이는 양적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고용을 촉진하려는 정책보다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함.

* 이 글은 『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』(금재호, 2011)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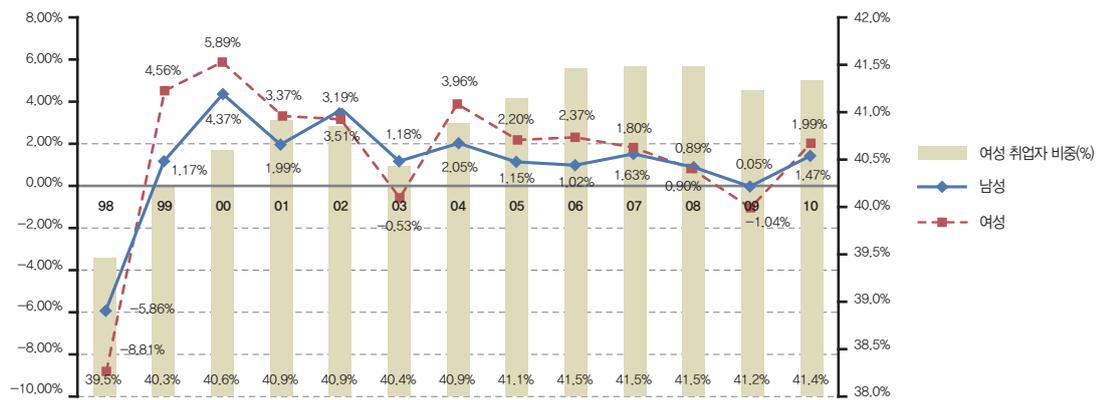
여성 일자리창출 잠재력의 약화

- 1998~2010년 사이 농림어업을 제외한 남성 취업자가 22.5%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32.4%나 증가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여성이 고용증가를 선도함.
 -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은 위기에 취약하고 일자리창출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한계에 부딪힘.
- 농림어업을 제외하였을 때 <그림 1>과 같이 1998년의 외환위기, 2003년의 신용대란, 그리고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위기 때마다 여성 취업자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심각함.

- 이는 여성 일자리의 질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, 여성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장 규모도 작고 근속연수도 짧음.¹⁾
- 기업이 경영위기에 부딪혔을 때 비정규직과 같은 주변부 인력부터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임, 불황에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이 우선적으로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.

- 2002~2003년을 제외한 2006년까지는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모두 남성을 앞섰음. 그러나 2007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, 비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도 2006~2010년 5년 동안 정체됨.

<그림 1> 성별 취업자의 증감률과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 : 농림어업 제외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1) 2010년 8월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의 27.1%보다 훨씬 높은 41.8%임. 또한 2010년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15.0%에 불과하며, 64.9%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종사함. 2010년 12월 기준, 남성 임금근로자는 현 직장에 6.24년을 근무하고 있는 반면, 여성은 3.65년에 그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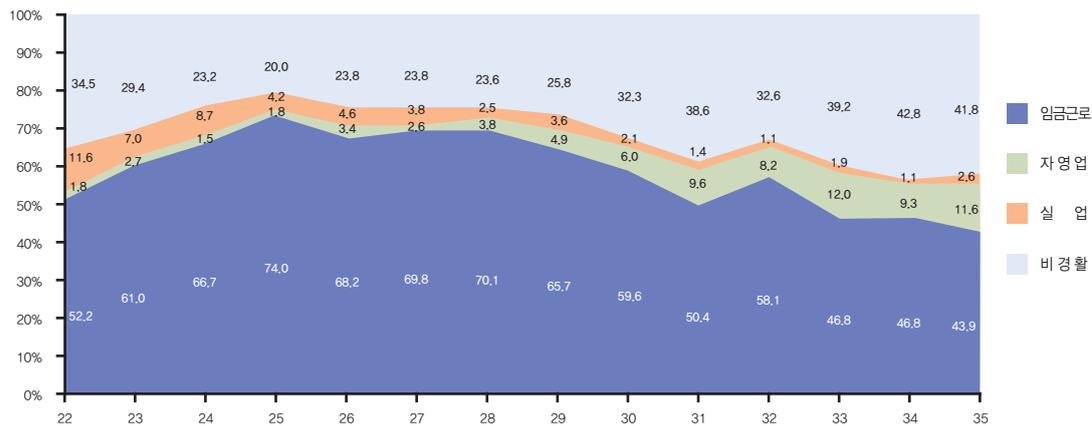
- 이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고용증가를 선택할 것이라는 과거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.

■ 인구고령화 등에 기인하여 40세 이상의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,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10년의 경우, 여성 취업자의 57.7%가 40세 이상으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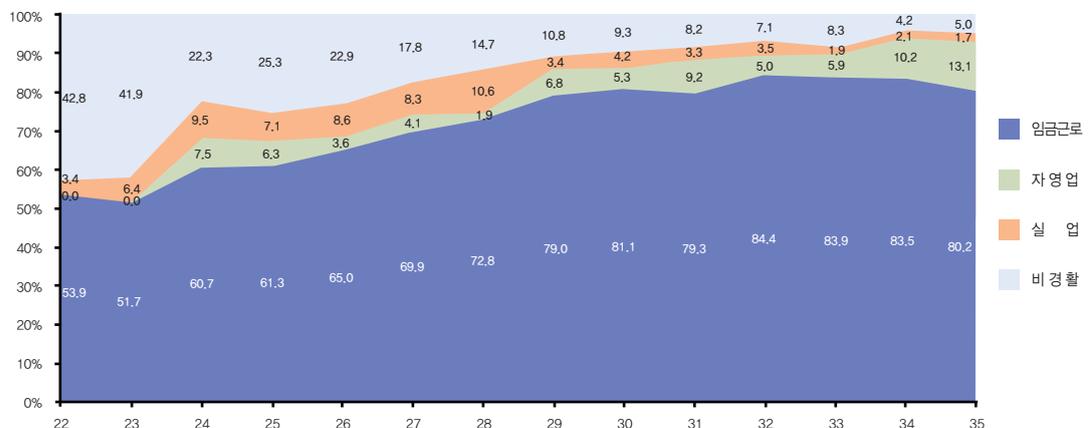
- 나이가 노동공급의 과잉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.

〈그림 2〉 4년제 대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: 2010년



자료 : 통계청(2010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그림 3〉 4년제 대졸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 : 2010년



자료 : 통계청(2010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20, 30대 여성의 경우, 고용률의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력단절 또는 경력포기의 가능성이 높음.
 - 여성의 경력단절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예로 4년제 대졸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추이를 비교해 보면 남녀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됨.
 - 4년제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25세에 75.8%로 정점을 이룬 뒤 점차 낮아져 35세에는 55.5%로 하락함(그림 2 참조).
 - 반대로 같은 학력의 남성 고용률은 25세에 67.6%를 기록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세에는 93.3%에 도달함(그림 3 참조).

으며, 이러한 현상은 M자형 연령대별 고용률(또는 경제활동참가율)로 설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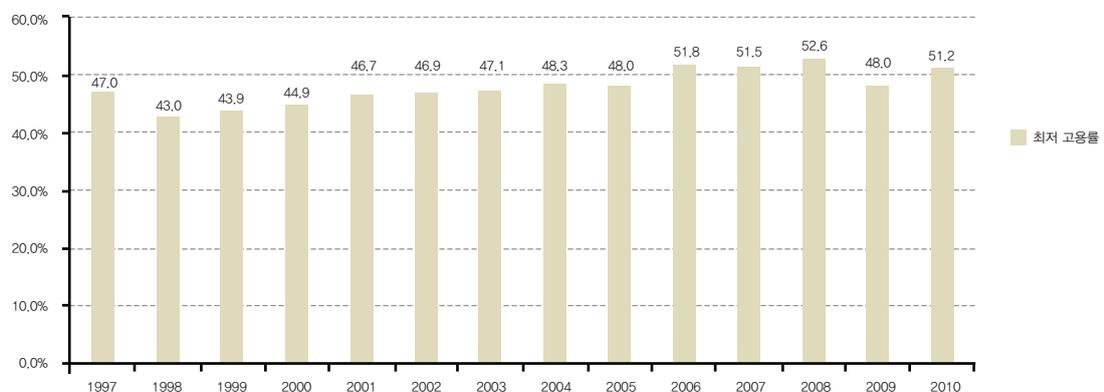
- 연령을 3세 단위로 구분하여 M자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의 고용률 값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면 <그림 4>와 같이 시간에 따라 고용률의 저점이 높아져 왔는데, 이는 여성의 M자형 곡선이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함.
- 만혼의 조류에 따라 여성 고용률의 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함. 3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였을 때 1997년에는 27~29세에서 고용률이 저점을 기록하였으나, 1998~2005년에는 30~32세로 높아졌고, 2006년 이후에는 33~35세로 저점이 이동함.

여성의 경력단절과 M자형 곡선

- 한국은 20대 후반~30대 중반 여성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을 벗어남에 따라 경력단절과 인적자원 유희화의 문제가 대두되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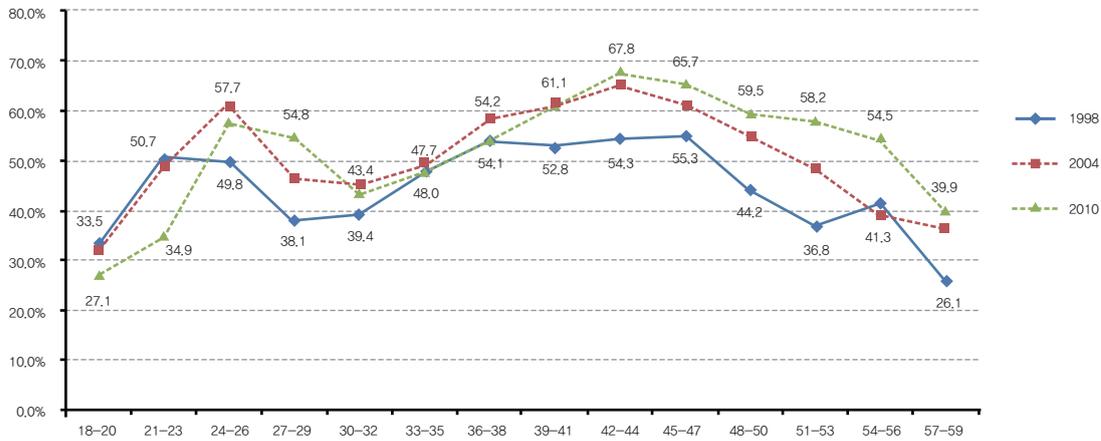
-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 곡선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, 중졸 이하에서는 역 U자를,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L자를, 고졸과 전문대졸에서는 M자형을 보임(그림 5, 6 참조).

<그림 4> 저점에서의 여성 고용률의 추이 : 모든 가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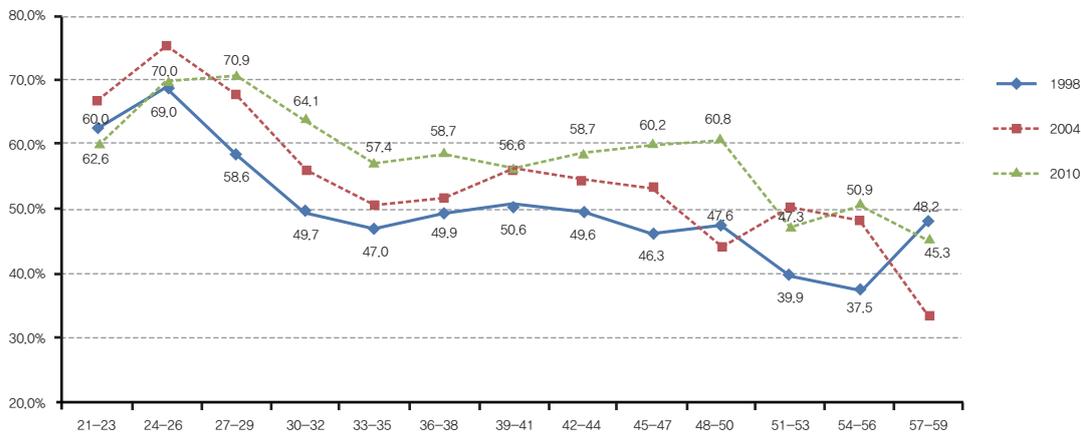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〈그림 5〉 고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: 모든 가구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〈그림 6〉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: 모든 가구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- 이처럼 M자형 고용률의 핵심 원인은 고졸 및 전문대졸 여성에게 있으며,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의 필요성이 낮거나 재취업하고 싶어도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.
- 4년제 대졸 여성의 고용률이 30대에 급락하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음.
 - 첫째, 배우자도 고학력자일 것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높음에 따라 가사에만 전념하려는 배우자의 소득효과(income effect)가 있음.
 - 둘째, 자녀의 양육 및 가사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로,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와 같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.
 - 셋째, 미래의 기대소득이 낮기 때문

로 승진 가능성이 낮고, 인적자본축적의 기회가 적을 때 취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.

-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서는 일·가정 양립 지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제고와 인적자본축적 기회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.

■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, 먼저 <그림 9> 처럼 24~32세 젊은 여성들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짐.

- 그러나 고용률 증가가 반드시 고용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, 고령화로 인해 이들이 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2.8%에서 2010년 20.3%로 낮아짐(그림 8 참조).

여성 고용의 연령대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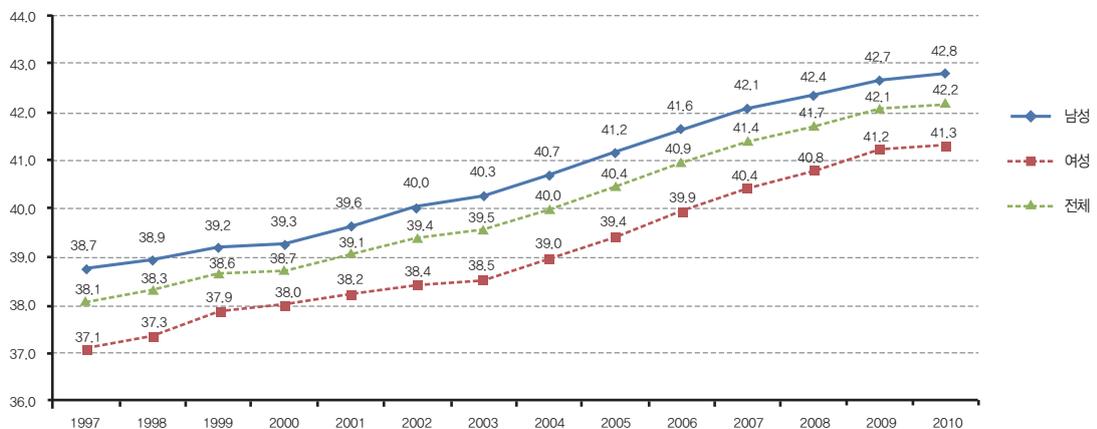
■ 여성 취업자의 고령화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. 비농가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면 <그림 7>과 같이 남녀 모두 취업자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음.

- 1997년의 경우 여성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37.1세였으나 13년이 경과한 2010년에는 평균연령이 41.3세로 4.2세나 높아짐.

■ 한편 33~38세 여성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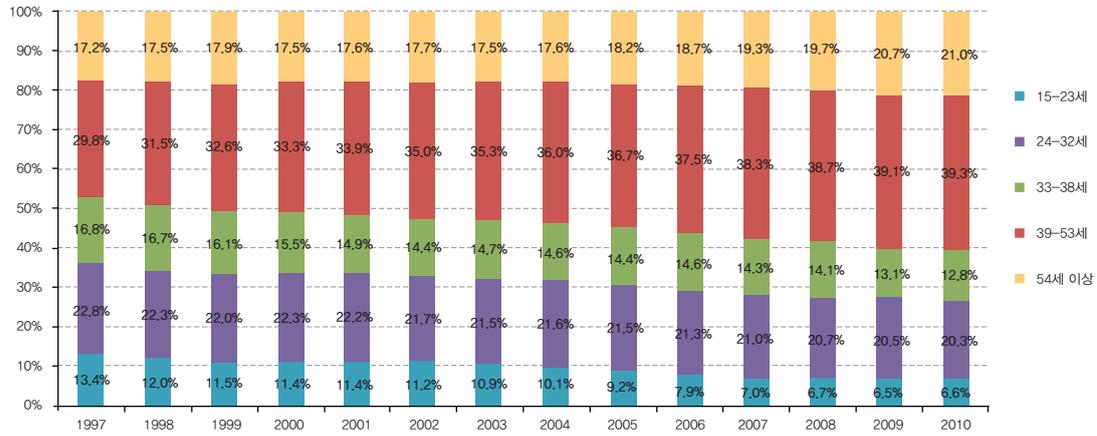
- 33~35세 여성 고용률은 1998년 49.0%에서 2010년 51.2%로, 36~38세 여성도 같은 기간 56.6%에서 54.6%로 큰 변화가 없음.
- 같은 기간 여성 전체의 고용률이 3.4% 포인트나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, 이들 연령층의 고용불안이 여전하며 노동시장 재진입도 그리 쉬워지지 않았음.

<그림 7> 취업자 평균연령의 변화 : 농림어업 제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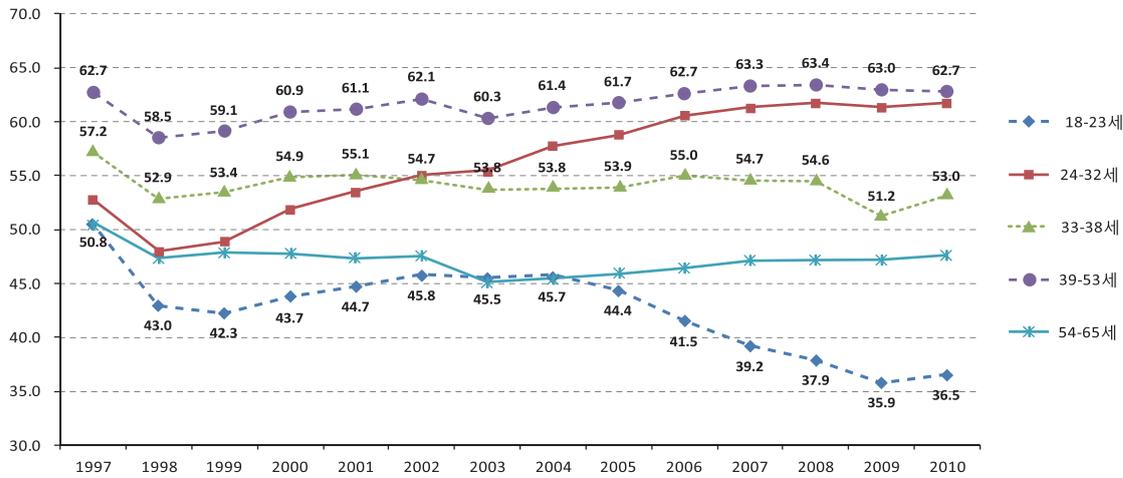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〈그림 8〉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: 모든 가구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〈그림 9〉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 : 모든 가구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- 이는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.

증가에 힘입어 1998~2010년 사이 52.6%나 늘어났고, 그 결과 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이들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31.5%에서 39.3%로 상승함.

- 39~53세 연령층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의 전반적인 상승이 관찰됨.
- 취업자의 절대규모도 생산가능인구의

- 18~23세에서는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용률과 취업자 규모 모두 크게 낮아짐.

- 1997년 60.1%이었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.9% 수준으로 높아졌음.

- 2010년 여성 취업자의 60.3%가 39세 이상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여성 고용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
결론 및 시사점

■ 외환위기 이후 여성 고용을 살펴보면,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'절반의 성공, 절반의 실패'로 판단됨.

- 여성의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대표적 지표인 M자형 곡선도 개선됨.

- 그러나 여성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경기불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 청년층 취업난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고, 특히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포기가 일반적인 현상임.

■ 보육서비스 지원과 같이 취업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 고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,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정책이 강조되어야 함.

- 여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'적극적 조치(affirmative action)'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 및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충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.

김재호(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keum@kli.re.kr / 02-3775-5553

※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.kli.re.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

발행인: 김승택 / 편집인: 장흥근 / 편집·교정: 정 철
150-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
Tel : 02-3775-5514 / Fax : 02-3775-0697 / www.kli.re.kr